

경산 이주노동자 무료 진료소로부터의 편지

김성록 회원

나는 지난 1년 반 동안 대부분의 시간을 의사로서 살지 않았다. 보건대학원을 다니며 보건학의 영역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하고 있었으며, 마땅히 직업으로 생계를 유지하지도 않았다. 그렇지만서도 한 달에 하루만큼은 의사로 일하고 있다. 경상북도 경산시, 경산공설시장 근처의 경산이주노동자센터 한켠에서 한 평 남짓한 진료실이 열리는 매주 일요일의 한 날, 오후 두어 시간 동안이다.

경산 이주노동자 무료 진료소를 소개합니다

이주노동자 무료 진료소의 역사를 이야기하려면 1994년 산업연수생 제도가 도입될 때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본격적으로 제도가 정착되고, 1997년경부터는 대구·경북 지역에도 이주노동자들의 유입이 시작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불안정한 고용과 열악한 노동환경은 이들을 손쉽게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길로 떠밀었고, 이러한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불안정한 법적 지위는 이들의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정주민보다 훨씬 큰 취약점이 되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품고, 대구와 경북에서 이주노동자들의 건강을 위해 행동에 나선 사람들이 성서공단 노동조합이었다. 2003년, 대구지역 서쪽 끝자락에 있는 성서공단 노동조합 사무실에 성서 이주노동자 무료 진료소가 문을 열었다. 그리고 2007년, 대구의 동쪽 끝과 접경한 경상북도 경산시의 공단 지역에서 이주노동자의 인권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경산 이주노동자 센터를 만들며 경산 이주노동자 무료 진료소 또한 함께 시작됐다.

김용철 성서공단 노동상담소장, 김희정 성서공단노조 위원장, 김헌주 경북북부이주노동자센터 소장과 같은 사람들의 고민을 뒤따라오다 보니 어느새 23년의 세월이 흘렀다. 두 곳 진료소에서 그간 2만 건에 달하는 진료가 이루어졌고, 함께해 온 정주민과 이주민, 환

자와 자원활동가는 5천 명을 넘어간다.

나는 대학에 입학하던 2016년부터 두 곳의 진료소에 드나들기 시작해, 어느덧 자원활동가로 6년, 진료 의사로 3년을 함께하고 있다. 이러한 시간 속에서 진료소의 모습도 조금씩 바뀌어 간다. 예나 지금이나 이주노동자들이 진료소를 찾는 가장 많은 원인은 작업으로 인한 근육통과 허리 통증이지만, 미등록 이주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나이가 들어가며 중장년층이 흔해지고 만성질환자의 수가 늘었다. 한두 알의 당뇨약으로 조절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 약의 종류를 다양하게 구비하기 시작했다. 또한 20년 전에는 잘 상상하기 어려웠던 이주민 2세들 또한 진료실을 찾게 되었고, 소아 환자들을 위한 물약도 진료실에 새로 들어왔다. 찾아오는 이주민들의 국적과 언어도 다양해졌고, 더 먼 지역에서 찾아오는 사람도 늘었다. 대구의 이주민 커뮤니티가 확장된 영향이기도 했고, 어떤 이는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같은 언어를 공유하는 이주민 커뮤니티가 잘 되지 않아서 찾아오기도 했다. 인터넷을 통해 알음알음 오는 이들도 있었다. 누군가는 혈압을 조절하기 위해 부산에서부터 왔고, 또 다른 누군가는 허리 통증 때문에 경상남도 창녕에서 수십 km를 거쳐 진료소를 찾아오기도 했다.

미등록 이주민도 지역사회 일원으로

이곳 진료소는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지속되고 있으나 한계 또한 분명히 존재한다.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은 감기, 근육통, 두통, 당뇨, 고혈압 같은 기초적인 1차 의료에 머문다. 그런데 이주민들의 의료적 필요는 치과 진료, 분만, 수술 등 이를 벗어나는 경우가 아주 흔하다. 다행히도 우리는 지역사회와 몇몇 의사, 치과의사 등의 호의로 진료소 내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도움을 받아 가고 있다. 공적인 영역에서는 경산시 보건소, 결핵협회와 함께 이주노동자 건강검진을 추진하고,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한 경우 KOFIH(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를 통해 혈액검사나 CT 촬영 등 진단에 필요한 검사들을 시행하고 있으며, 치료는 대구의료원으로 전원하여 이주민에게 배정되는 약간의 예산을 통하여 해결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예산은 지나치게 빨리 소진된다. 올해는 3월에 모두 소진되었다. 결국 이들 미등록 이주노동자에게 수술 등의 필요가 생기는 경우에는 진료소의 개인기(예를 들자면 친한 외과 의사 인맥이라던지)에 의존하거나, 결국 이주민이 큰 부담을 지고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이다.

또한 누군가는 시스템을 구축하려 노력하기도 하는데, 대구에서는 ‘이주민 건강권 실현을 위한 동행(이하 동행)’이 그러한 시도의 일환이다. 이들이 항상 바라는 것은 미등록 이주민에게도 건강보험의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지만, 현실이 녹록지 않다는 사실도 잘 알고



▲ 경산 이주노동자 무료진료소에서 진료중인 모습. 사진 : 김성록

있다. 그래서 동행은 이주노동자들의 공제회를 만들어 의료비를 공제하고, 지원하고, 또 발품을 팔아가며 지역의 병원들과 소통해 비급여 영역인 이주노동자의 진료비를 최대한 낮추려 노력하기도 한다. 또 지원사업 등을 통해 이주민들이 겪는 언어의 어려움을 조금 이나마 낮추기 위해 공공의료 통역 교육사업을 실시하기도 한다.

이러한 여러 단체와 사람들의 노력은 오랜 시간 지속되어 왔음에도 항상 위태위태한 느낌이 든다. 근본적으로 이주노동자들의 법적 지위와 처우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겠다. 대한민국은, 아니 최소한 대구·경북 지역은 더 이상 이주노동자 없이 산업과 농업이 유지되지 않는 사회가 되었음에도 우리 사회가 이들을 보는 시선은 단기적이고 값싼 인력이란 관점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이주민들이 건강하지 못하도록 내몰리는 사회적 여건 속에서 진료소는 그저 작은 영역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나가는 것 뿐이다.

결국 지금 시점에서 절실히 필요성을 느끼는 부분은 지금과 같은 상황을 만들어낸 고용허가제를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이들이 '미등록'의 상황에서 벗어나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온전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영주권을 포함한 안정적인 체류 자격을 보장하는 이민 정책에 대한 사회적 논의이다.

진료소가 버텨온 것은 지역에서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을 위해 움직이는 여러 단체와의 연대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성서공단 노동조합이 그러하며, 경산이주민센터, 경북북부이주민센터가, 동행과 같은 곳들이 그러하다. 이들은 언제나 가장 낮은 곳에서 힘든 투쟁을 지속하고 있다. 이주노동자 무료진료소와 관련 단체들의 활동에 많은 연대를 부탁드립니다. 